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2001년도 찬양대원 이번주 임명

찬양대 총회는 오늘부터 찬양대 별로

2001년도에 봉사할 찬양대원이 임명된다. 임명식은 가브리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는 오늘 I, II, III부 예배에, 베들레헴 찬양대는 찬양예배시 각각 임명을 받는다. 호산나, 시온 찬양대는 13일(수) I, II부 예배시에 각각 거행된다. 또한 오늘 찬양예배시에는 갈렙, 펠그림, 글로리아 중창단과 아멘 관현악단, 그리고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단원도 임명을 받는다. 찬양대는 찬양대원 임명식을 마친 오늘부터 각 찬양대 별로 총회를

갖고 찬양대의 질적 성숙과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현재 우리 교회는 8개의 찬양대와 2개의 중창단 그리고 2개의 기악팀으로 주일 I, II, III부 예배와 찬양예배 그리고 수요일, II부 예배에서 찬양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찬양예배를 담당할 베들레헴 찬양대는 남성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요일 1부 예배의 찬양을 담당할 호산나 찬양대는 여성만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갈렙 찬양대,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출범

갈렙 찬양대와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팀이 정식으로 찬양위원회 산하 찬양팀으로 출범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갈렙 찬양대는 장례식에 참가하여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유족을 위로한다.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는 주일 II부 예배시 입례송과 헌금시 연주를 하게 된다.

새 예배당
입당D-15

결혼 전날 밤의 신부는 흥분과 설렘으로
반감을 설치곤 한다.
새 예배당 입당을 눈앞에 둔 서울교회 성도들도
요즈음 설렘과 흥분 속에서
그날을 손 끝이 기다린다.

-성탄절 행사-

◎성탄축하 찬양예배 -17일(주일) 오후5시

성탄축하 찬양예배를 17일(주일) 찬양예배시에 드린다. 이날의 성탄축하 찬양은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주관한다.

◎성탄축하 잔치 -24일(주일) 오후5시

성탄 전야인 24일(주일) 오후5시 은교회 성도들이 모여 교회학교 학생들의 찬양과 율동, 연극과 성서낭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탄절 감사예배 -25일(월) 오전5시, 11시 새 예배당에서

성탄절인 25일(월)에는 새벽5시에 새벽기도회와 오전 11시에 감사예배를 새 예배당에서 드리는 감격을 누리게 된다.

교회학교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고 온 가족과 함께 드리게 되며 새 예배당에서 감격스런 첫번 성찬의 기쁨도 함께 한다.

2001년도 찬양위원회의 소지

지도: 고경선 목사 위원장: 김상철 장로
서기: 이병생 장로 회계: 전기섭 장로

성가대	대장	부대장	지휘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가브리엘찬양대	이 번생	정 동호	허 희철		양 경실
할렐루야찬양대	성 준경	김 금준	박 정선	조 은주	강 민희
임마누엘찬양대	김 상철	백 수남	김 선일	안 진선	백 송이
베들레헴찬양대	이 완형	신 용식	임 훈규		홍 혜란
호산나 찬양대	전 배호	김 순자	서 희숙	홍 혜란	
시온 찬양대	전 기섭	오 형철	강 민희	조 은주	김 지운
은 빛 찬양대	이 응선	백 영희	이 보우		김 명숙
갈렙 찬양대	민 순구	김 정희	이 태상		백 정순
펠그림 중창단	임 상현	송 인권	고 경선		김 재연
글로리아 중창단	민 순구	최 정화	이 태훈		문 형순
아멘 관현악단	김 상철	김 복순	김 복순		이 승민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김 규태	김 인숙	이 미리		

2001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 후원자 신청접수

전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돕는 100교회 운동 후원자 접수를 받고 있다.

전도위원회는 부서나 개인별로 재신청이나 신규신청이나 모두 접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농어촌 교회를 섬기며 민족 복음화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기 바란다.

제자의도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라

빌립보서 4:1-9



이종운 목사

교회에서도 오해와 갈등, 혹은 다른 의견으로 인하여 피차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게라는 두 여인이 교회를 섬기다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돕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 바울의 마음에 심한 근심이 생겼고 교회에 화평이 깨졌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런데 서로 일하는 방법이 다를 때 오해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명에를 멘 자요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했습니다(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을 심히 근심케 하며 다투었습니다. 성도는 서로 다투기 보다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는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쁜 마음은 서로 관용하게 되고 돕는 자가 되게 합니다. 한 가정에서도 부부가 팽팽하게 맞서면 용서나 양보가 없게 됩니다. 성도가 서로 화목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5절).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판단하실 터이니 성도들은 피차에 다투며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내려다보시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무리를 보시면서 근심하십니다.

1.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영어 성경에 'to live in harmony'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란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으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품으면 욕심이 생겨서 갈등이 생기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죽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고집과 생각대로 사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이것은 성도간의 대인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사람끼리의 관계도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섬기는 도리를 잘 배운 사람은 가정에서나 이웃간이나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다툼은 피차에 권리 주장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모습이며 모든 권리는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사로 분량껏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개인의 화평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평안합니다. 개인이 하나님과 불화하면 자연히 이웃과 다투게 되고 가정도 교회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2. 주 안에서 더불어 일하라

"참으로 나와 명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3절).

동역자는 같은 명에를 멘 사람입니다. 성도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불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달리면 10분에 갈 수 있는 길을 둘이 함께 달리면 20분이 걸리 수도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함께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출발을 함께 하고 약한 사람을 끌어주며 더불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3. 주 안에서 더불어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4절).

선택받은 확신이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주시므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형제를 향하여 찌르는 가시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도 못할 뿐 아니라 돕지도 못합니다.

기쁨은 관심이러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며 마음에 참기쁨이 있는 사람은 약한 이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집니다.

기쁨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환경에 따라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기쁨은 소유의 유무나 과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 넘어지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신 사람 속에 깃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지옥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은 서로 용서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관용은 교리적인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입니다. 교회는 은혜 중심이 되어야 하며 법 보다 은혜가 앞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일하며 서로 용서하므로 화평한 교회를 만드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 학원으로 들어가라

홍성주 집사 (8교구)

오늘날 교육현장은 말할 수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반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대입시를 목표로 획일화된 교육을 하므로 사람을 암기도구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교육을 경제논리로 해결하려는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교육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이 틈에 사탄의 문화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부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공부, 신앙보다 입시나 취업에 중점을 두

고 있고 세상학문을 위해 주일성수를 뒤로하고 교회결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각종 유흥장에는 밤 낮이 없이 퇴폐로 흥청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28:19의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며 특히 학원이 중요한 삶의 현장인 교사들에게 이 명령은 거스를수 없는 절대결명의 최대과제입니다.

기독교 교사는 학교에서 세상학문을 가르치는 일과, 동시에 진리와 생명을 가르쳐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학원선교사입니다.

기독교 교사는 고기가 엄청나게 물려있는 황금 어장에 파견된 행복한 어부입니다.

단지기만 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매일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준비된 어부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사는 이 지상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비전을 충동원하여 최선의 수확을 올려야 합니다. 이 명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서로의 선교경험을 나누고 효과적인 개개인의 선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모임이 '학원선교회'입니다. 좋은 직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안에서 동역자가 되어 학원복음화를 위해 같은 마음을 품고 명을 같이 합시다. 삶을 영위하는 수단으로서의 교육자가 아닌 생명구원의 사명을 받은 교육자로서 말입니다.

제1권사회장을 맞겨주신 하나님께

삼기를 권사 (2교구)

공홀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백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몇주전 순례자를 보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 진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타다 남은 부지깅이보다 못한 죄인을 제1권사회 회장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심장수술을 세번 받고 맥박에 이상이 생겨서 박동기를 가슴에 달고 살며 천식까지 겹쳐있는 환자인 저를 불러주시어, 보호하시며 날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중책을 앞에 놓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뒤에서 기도해주시는 힘으로 겸손히 앞장서서 섬기며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난 9년동안 뒤에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수고의 땀을 흘리셨습니다. 철따라 장 담그시고 김장하시고 목회자 세미나에서 정성으로 김밥을 싸시는 일 등..

많은 권사님들의 기도의 무릎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드리며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 예배당 시대를 몇 주 앞두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기도해 힘쓰며 사랑, 기쁨이 넘치고 소망으로 가득 찬 제1권사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 예배당 시대를 맞이하며

진승근 집사 (10교구)

새 천년을 희망차게 보내리라 다짐하며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후회와 한숨이 가득합니다. 특히 성도의 생활을 올바르게 했나 하는 점에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임을 너무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다락방 예배와 선교회, 전도회의 모임에서 말입니다.

이 모임은 교회의 가장 낮은 위치의 모임인 듯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모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새 예배당으로 이사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해에는 이 모임들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참석하여 칭찬 받는 자들이 됩시다. 내년 이맘때는 보람찬 한 해를 보내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서울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아이들, 뒤돌아보면 벌써 한손은 친구의 옆구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 변화하는 문화에 민감한 감성적인 아이들, 이들이 바로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소유한 미래가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세상에 아름답고 귀한 서울교회가 존재하고 그 안에 초등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 아이들은 21세기 미래사회를 열어갈 이시대의 주역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아이들,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두 손을 모으는 아이들, 함께 즐거워하고 울 줄 아는 따뜻한 아이들, 그래서 우리 초등부는 더욱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그 기둥들이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희망을 노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도 초등부를 섬기시는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함으로 구원의 확신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 입니다.

또한 아흔 아홉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양 한마리를 찾았었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 황금어장인 대치동에 영혼구원의 그물을 계속 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문화에 익숙해져만가는, 더욱 나만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 남을 배려하고 서로 세워 줄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로 가꾸어 갈 것입니다.



가을의 기도

윤영남 집사 (10교구)

이젠

돌아와 땅을 파게 하소서
 비이삭 떨어진 이랑마다
 눈물겨운 눈으로 바쁜 한숨 몰아내며
 깊게 깊게 땅을 파게 하소서
 지난 여름
 바닥 드러낸 호수도 잘려나간 산허리도
 그들 탓은 아니기에
 그들 탓은 아니기에

이젠 돌아와

손을 모으게 하소서
 옴은 가르침이라 외쳤던 선 목소리도
 무지 언약 따라 행진했던 그 발걸음도
 다소곳이 눈감고 두 손 모으게 하소서
 속삭임으로 알알이 관계 맺은
 포도송이 만져보며

색깔대로 모양대로 가을바람 안은
 국화꽃 향기 맡으며
 오늘 이 모습이대로
 닳고 싶은 형상있기에
 닳고 싶은 형상있기에

이젠 돌아와 창을 닫게 하소서
 햇살 비친 창가에서
 하늘 우러러 감사의 손길
 말씀 떠올려 눈물의 음성
 버지않아
 맨 땅 맨 손 엄두도 못낼 추운 날

그 날이 찾아오기전에
 그 날이 찾아오기전에



편지왔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무주 산골에서 평안을 여쭙니다.

그 동안 서울교회의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 곳은 12호태풍 '파라피룬'의 영향으로 농작물과 파수의 많은 피해를 보아 너무나 힘겨운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지붕도 일부가 파손되어 임시보수를 하였습니다. 요즘의 기도와 사역은 일년농사를 망친 농가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심적인 치유

스데반외를 섬기며

이 복규 집사 (10교구)

새 천년을 맞이하는 지구촌은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릴 것 같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 서울교회에서 맞이한 새 천년은 소망이었고 눈물어린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음의 산실이 될 새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탄절에 아름다운 예배당에 입당할 수 있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저는 디모데전서 3장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스데반 집사의 고귀한 신앙에 반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 깊이 회개하는 한편,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청지기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새 예배당 시대의 원년에 우리 스데반회는

를 위해 온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 것은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의 마음을 추스려 헌신토록 해야하는 어려움과 저의 건강이 감당해낼 지 또 적지 않은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해야할 지 고민이 되지만 기도하며 풀어가려고 합니다.

서울교회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교수, 목사님 장로님 저희 가족과 교회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감사드리며 인영히 계십시오.

내도중앙교회 전도사 정장현

▶ 정정 : 지난 주 서리집사 임명시 행정착오로 김혜아집사(12교구), 임옥균 집사(1교구), 문형순 집사(4교구)의 이름이 누락된 것을 정정합니다.



신입회원 10명을 맞이하여 44명의 회원이 교회의 각 부서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유년의 때를 지나 이제 청년기를 맞이할 우리교회의 지체들은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피와 같이,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봉사, 전도, 교육,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청년 서울교회'의 중심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쁨으로 섬김과 화평케 하는 일에 섬 없이 믿음으로 힘을 다하는 스데반 회원들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동정 ■

▶ 홍순복사모는 지난 15일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논문을 제출하고 내년 2월에 이학박사(Ph.D)학위를 받게 되었다. 홍사모는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네만 의과대학에서 미생물학 박사과정을 이수한바 있다.

▶ 신순우집사(4교구)는 독일 국제 입업협력회의 참석차 17일 출국 예정이다

▶ 이인선 성도(11교구): 디자인 숲 개업 525-6346~7

▶ 조철기, 김영관 집사(6교구): 김장배추 450포기 지원

▶ 모세남선교회에서는 12월 16일(토) 오후 6시에 교회 2층 예배실에서 노인 성치매에 대한 건강강좌를 갖는다. 강사는 이상복 박사이다.

☑ 급주 식사제공 가정

: 임훈규 장로, 정경자 집사

☑ 건축현장 방문팀

: 루디아 여전도회 - 11일(월) 새벽 기도회후 새 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 이종은 목사 방송실고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2.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3. 임명받은 사명자 위하여
4. 농어촌 100교회운동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 예배 및 집의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외약도

